

국제금융시장 12월 동향 및 1월 전망

KDB미래전략연구소 미래전략개발부

윤 영 교 (yoonyk@kdb.co.kr)

심 한 용 (hyshim@kdb.co.kr)

- ◆ (환율) 12월 원/달러 환율은 국내 정치적 불안정 등으로 상승하였고, 1월 환율은 무역흑자 지속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주식투자자금 유출 등으로 1,400원 이상의 높은 수준이 지속될 전망
- ◆ (금리) 12월 주요국 금리는 연준 금리인하 횟수 조정 전망 등으로 상승, 1월 주요국 금리는 트럼프 정부의 정책 불확실성 해소, 각국 통화정책회의 결과 예상 등에 따라 하방 압력이 우세할 전망
- ◆ (주가) 12월 미국 주가는 연준의 금리인하 속도 조절 가능성으로 하락한 반면 유로존과 일본은 상승, 1월 미국과 일본 주가는 상승할 전망이나 유로존은 무역장벽 현실화시 조정 가능성

□ 12월 주요 경제·금융 동향 : 연준과 ECB는 기준금리 25bp 인하 결정, 일본은 기준금리 동결

- 美 연준은 FOMC(17~18일)에서 기준금리 25bp 인하(4.75% → 4.50%)
 - 성장률 및 물가 전망치*를 상향하였고, 고용 및 물가 목표 달성의 위험이 대체로 균형(roughly in balance)을 이루고 있다는 견해를 유지하며 25bp 인하 결정
 - * '25년 전망(% '24.9월 → 12월): 경제성장률 2.0 → 2.1, PCE 상승률 2.2 → 2.5, 실업률 4.4 → 4.3
 - 파월 의장은 물가*의 하방경직성 등으로 금번 인하 결정은 박빙(dose call)이었다 언급하였고, 점도표상 '25년 기준금리 인하 횟수 전망(4회→2회)을 하향 조정
 - * 美 소비자물가 상승률(% , yoy) : 2.9('24.7월) → 2.5(8월) → 2.4(9월) → 2.6(10월) → 2.7(11월)
- ECB는 통화정책결정회의(12일)에서 기준금리 25bp 인하(수신금리 3.75% → 3.50%)
 - 역내 디스인플레이션 과정이 순조로우나, 제조업 부진 등 경기 회복 지연에 따라 물가와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하며 만장일치로 정책금리 인하 결정
 - * '25년 전망(% '24.9월 → 12월): 경제성장률 1.3 → 1.1, 물가(HICP) 상승률 2.2 → 2.1
 - 라가르드 총재는 50bp 인하 논의도 있었다 언급하였고, 트럼프 정부의 무역 정책 등이 경제성장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며 금리인하 지속 시사
- BOJ는 금융정책회의(18~19일)에서 기준금리를 동결(단기금리 0.25%)
 - 완만한 경기 회복세 가운데 해외 경제지표, 원자재 가격 변동성과 내년 춘투에 따른 기업의 가격·임금 설정 등이 물가*경로와 성장률에 미치는 불확실성으로 동결 결정
 - * 日 소비자물가 상승률(% , yoy) : 2.8('24.7월) → 3.0(8월) → 2.5(9월) → 2.3(10월) → 2.9(11월)
 - 우에다 총재는 금리인상 관련하여 임금 동향과 미국 경제정책의 불확실성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입장으로, 향후 지표의존적 의사결정을 시사하며 신중론 유지

□ '25.1월 주요 국내외 경제·금융 이벤트

- 미국, 1월 FOMC(28~29일) : 미국 경제성장률('24.2Q 3.0% → 3Q 3.1%)이 견조한 흐름을 지속하는 가운데, 금융시장*에서 동결 전망이 우세하고, 파월 의장도 금리인하 속도 조절을 시사**하는 등 기준금리 동결 전망

* 연방기금금리선물에 반영된 1월 동결 확률은 88.8%, 25bp 인하 확률은 11.2%('24.12.30일)

** 앞선 100bp 인하로 장기 목표금리인 중립금리 수준까지 남은 인하 폭이 줄었다 평가

- 한국, 금통위(16일) : 「2025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안」에서 추가 금리인하를 예고하였고, 11월 산업활동동향 결과* 등 내수 회복 지연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신정부 경제정책의 불확실성, 환율 변동성 지속 우려 등으로 기준금리 동결 전망

* 주요 내수 지표(% , 전월비) : 전산업생산 △0.4, 소매판매 0.4, 설비투자 △1.6, 건설기성 △0.2

□ 주요 금융지표 동향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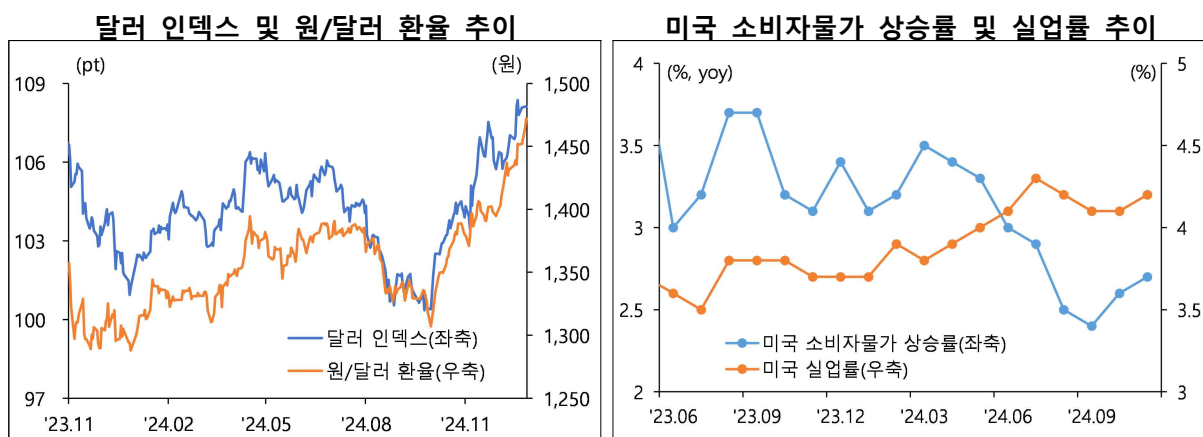
- (환율) 12월 원/달러 환율은 국내 정치적 불안정 등으로 상승, 1월 환율은 무역 흑자 지속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1,400원 이상의 높은 수준이 지속될 전망

- 12월 원/달러 환율은 견고한 미국 성장률 등에 따른 강달러 영향 가운데 비상 계엄 선포(3일) 및 대통령 탄핵 가결(14일) 등 국내 정치적 불안정에 따른 원화 약세 지속으로 최고 1,486.7(27일 장중)원에 도달하는 등 상승세를 시현

- 1월 원/달러 환율은 무역흑자* 지속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주식투자자금** 유출과 국내의 정치적 불안정 등으로 1,400원 이상의 높은 수준이 지속될 전망

* 국내 무역수지(억달러) : 82.9('24.6월) → 34.1(7월) → 36.6(8월) → 66.6(9월) → 31.7(10월)

** 외국인 주식투자자금 순유입(억달러) : 18.6('24.7월) → △18.5(8월) → △55.7(9월) → △41.7(10월) → △29.5(11월)



	'22년말	'23년말	'24.11월말	'24.12월말	전월대비
원/달러 환율	1,264.5	1,294.5	1,397.0	1,472.5	+5.4%
달러 인덱스	103.49	101.47	106.06	108.09	+1.9%

자료 : 연합인포맥스, Bloomberg

- (금리) 12월 주요국 금리는 연준 금리인하 횟수 조정 전망 등으로 상승, 1월 주요국 금리는 각국 통화정책회의 결과 예상 등에 따라 하방 압력이 우세할 전망
 - 12월 미국 금리는 트럼프 신정부의 재정적자 가능성을 선반영하며 연준의 금리인하 속도 조절론으로 상승, 유로존은 ECB 인사들의 점진적인 금리인하를 지지하는 발언* 등으로 상승, 일본 금리는 엔화 약세**와 미 국채금리 상승에 동조하며 상승
 - * 센테노 포르투갈 중앙은행 총재, 에스κρι바 스페인 중앙은행 총재 등은 25bp씩 인하를 지지하는 입장
 - ** 엔/달러 환율(엔) : 150.0(7.31일) → 143.6(9.30일) → 149.6(11.29일) → 157.9(12.30일)
 - 1월 미국 금리는 트럼프 정부 출범 후 정책 불확실성 해소로 상승분을 반납할 전망, 유로존 금리는 기준금리 인하 기조 지속으로 하락을 예상, 일본은 대외 불확실성과 엔화 변동성 등에 따른 기준금리 동결 전망으로 하방 압력이 우세
- (주가) 12월 미국 주가는 금리인하 속도 조절 가능성으로 하락한 반면 유로존과 일본은 상승, 1월 미국과 일본 주가는 상승 전망되나 유로존은 조정 가능성
 - 12월 미국 주가는 연준의 금리인하 속도 조절 가능성과 주요 종목의 4분기 실적 경계에 따른 차익실현 매물 출회로 하락, 유로존은 ECB의 금리인하 지속을 기대하며 상승, 일본은 엔저 지속에 따른 양호한 수출주 실적 등으로 상승
 - 1월 미국 주가는 견조한 경제 상황, 일본은 주주 친화적 정책 지속 등으로 양호한 흐름이 이어질 전망이며 유로존은 트럼프 관세장벽 현실화 우려로 조정 가능성



	'22년말	'23년말	'24.11월말	'24.12월말	전월대비
미국채 10y	3.8748	3.897	4.263	4.533	+6.3%
독일채 10y	2.5710	1.979	2.160	2.367	+9.6%
일본채 10y	0.4220	0.623	1.060	1.101	+3.9%
다우존스	32,875.71	37,385.97	44,722.06	42,573.73	△4.8%
유로 Stoxx 50	3,808.82	4,521.47	4,733.15	4,869.28	+2.9%
Nikkei 225	26,340.50	33,169.05	38,067.18	39,894.54	+4.8%

자료 : Bloomberg